12강 보드리야르와 소비사회

1. 소비사회의 윤리

1.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 막스베버의 저작『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다.

◇ 보드리야르의 책과 베버의 책을 함께 놓으면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 소비사회의 윤리는 개성의 분출이자 욕망의 해방이다.

2. 구별짓기의 욕망

2.1 필요의 논리에서 소비의 논리로

◇ 사물은 대체될 수 있는 객관적 기능의 영역 안에서 사물들은 교환 불가능하지만, 이런 명시적 의미denotation의 영역 밖에서 어떤 사물은 다소 무제약적인 방식으로 대체가능하게 된다. 이런 암시적 의미connotation의 영역 안에서는 사물은 기호라는 가치를 띄게 된다. 따라서 세탁기는 도구로서 쓰여지는serve 것과 함께 행복, 위세 등의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play. 바로 이 후자의 영역이 소비의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종류의 사물들이 '의미를 표시하는 요소signifying element'로서의 세탁기를 대신할 수 있다. 상징symbols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기호signs의 논리에서도 사물은 이제 명확하게 규정된 기능이나 요구와 더 이상 관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그 이유는 사물이 전혀 다른 것(그것은 사회적 논리일 수도 있고 욕망desire의 논리일 수도 있는데)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사물은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무의식적이고 유동적인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의 사회』

◇ 대중매체의 상업광고는 기능적 용도보다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우리는 이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 구별짓기의 욕망은 행복, 위세 혹은 안락함은 희소한 것이며, 불행, 열등 불편함은 평범하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3. 소비사회의 숨겨진 이면

3.1 소비사회의 숨겨진 이면, 혹은 자본주의의 진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으며, 결정적인 인간 혁명이 고난에 가득 찬 영웅적 생산시대를 넘어서 행복한 소비시대를 만들어내면서 인간과 그 욕망의 복권이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소비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생산과 소비는 생산력과 그 통제의 확대재생산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똑같은 거대한 과정이다. 체계의 명령인 이 지상명령은 그 반대의 형태로, 즉 욕구의 해방, 개성의 개화, 향유, 풍부함 등의 형태로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일상적인 윤리 및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간다. - 이것은 실로 엄청나게 교묘한 것이다. 지출, 향유, 무계산적인 구매('사는 것은 지금, 지불은 나중에')라고 하는 주제가 절약, 노동, 유산이라고 '청교도적' 주제를 교대하고 있다. 이런 교대가 인간 혁명인 것은 단지 겉보기로만 그런 것이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과정과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한 체계의 틀 속에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가치체계를 다른 가치체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새로운 목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실제적인 내용을 잃어버려 체계의 재생산의 강제적 매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와 그 충족은, 오늘날에는 다른 생산력(노동력 등)처럼 강요되고 합리화된 생산력이다." 『소비의 사회』

◇ 자본가는 어떻게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화폐를 꺼낼 수 있는가?

→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그것은 상품을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가능해진다.

→ 필요는 충족되면 사라지지만, 욕망은 충족을 모르는 법이다.

3.3 소비사회의 우울한 전망

◇ (노동력의) 박탈에 의한 착취는 사회적 노동이라고 하는 집단적 영역에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부터는) 사람들을 연대하게 한다. 착취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계급의식을 일으킨다. 소비대상 및 소비재의 관리되는 소유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니며, 몰연대적이고 몰역사적인 경향을 지닌다. 또 분업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 노동자는 다른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착취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착취이다. 소비자인 한에서는, 사람은 다시 고립되고 뿔뿔이 떨어져서 기껏해야 서로 무관심한 군중이 될 뿐이다.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 경기장 및 영화관의 관중 등) 소비의 구조는 매우 유동적인 동시에 폐쇄적이다. (…) 소비의 대상이 지위의 계층화를 만들어낸다. 소비대상은 가령 사람들을 고립시키지 않으며 차별하고 또 소비자들을 어느 한 코드에 집단적으로 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집단적인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의 사회』

◇ 생산의 현장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유대감을 느낀다.

→ 반면 소비의 현장에서 우리는 산산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버린다.

◇ 소비사회는 남이 쓰던 물건을 쓰는 것이 가장 비천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 아내로서의 자아, 어머니로서의 자아,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아 등등 역할이 쪼개지면 질술고 소비하는 상품은 그만큼 커진다.

4. 소비사회 속 여성

4.1 소비사회 속 여성의 해방

◇ 자본주의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 전 자본주의는 남성을 선호했다.

→ 남성만이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 자본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는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 소비사회와 자유

5. 소비사회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가?

◇ 횟집 수족관 속 우글거리는 산낙지
푸른 바다 누비던 완강한 접착력의 빨판도
유리벽의 두루뭉실함에 부딪혀
전투력을 잊은 채 퍼질러앉은 지 오래
가쁜 호흡의 나날을 흐물흐물 살아가는 산낙지
주인은 부지런히 고무 호스로 뽀글뽀글
하루분의 산소를 불어넣어준다
산낙지를 찾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
여기 쌩쌩한 놈들이 있는뎁쇼
히히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 있어달라고
살아 있어달라고
그러나, 헉헉대는 그대들의 숨통 속으로
단비처럼 달콤히 스며드는 저 산소 방울들은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인가
투명한 수족관을 바라보며 나는
투명하게 깨닫는다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
저 수족관이라는 틀의 공간 속에서는
생명의 산소도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로
뽀글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체제에 관하여」『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 = "자유라고 다 자유는 아니구나!"
→ 자유나 개성의 분출, 혹은 욕망의 해방이란 테마는 오직 돈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

◇ 자본가의 윤리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주머니는 어느새 비어버린다.
→ 또 다시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